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실전 로드맵

# 5차원 영어

---

**5 Dimensional  
ENGLISH**

원동연 지음

김영사

개정판을 내면서 .....	8
프롤로그_ 우리 영어 교육의 문제점과 해결책 .....	11

## 1부 사고 구조 변환법과 발성 구조 변환법

1장 사고 구조 변환법 .....	20
1. 영어의 사고 구조를 알아야 변환을 시도할 수 있다 .....	20
2. 1대원리 - 영어의 문장은 한 가지 형식밖에 없다 .....	21
3. 5소원칙 - 사전에 없는 표현 만들기 .....	27
2장 발성 구조 변환법 .....	44
1. 발성 구조의 차이점 .....	44
2. 모음의 발성 이해하기 .....	46
3. 자음의 발성 이해하기 .....	57
4. 연음 이해하기 .....	63
5. 발성 구조 변환법 .....	65

## 2부 사고 구조와 발성 구조 변환법을 활용한 영어 학습

1장	읽기	71
	1. 센스 그룹 독서법	71
	2. 센스 그룹 끊는 법	81
	3. 센스 그룹 독서 훈련	86
2장	쓰기	93
	1. 사고 구조 변환을 위한 3단계 작문법	93
	2. 문단 영작하기	96
	3. 3단계 작문법 연습	101

3장	듣기 .....	106
	1. 발성 구조 변환 학습법 훈련 .....	107
	2. 사고 구조 변환 학습법으로 듣기 .....	108
4장	말하기 .....	113
	1. 말하기는 쓰기와 같다 .....	113
	2. 사고 구조 변환 학습법으로 말하기 .....	114
	3. 문장의 강세 .....	117
	4. 문장의 억양 .....	118

## 3부 언어 수용성을 극대화하는 5대 영어 학습법

1장	영어 속해 독서법 .....	122
	1. 영문 독서 능력 두 배 끌어올리기 .....	122
	2. 독서 속도 측정 .....	123
	3. 독서 능력 측정 방법 .....	124
	4. 묵독 방지 .....	127
	5. 안구 훈련법 .....	127
	6. 센스 그룹 확장 훈련 .....	131
2장	영어 글 분석법 .....	133
	1. 영문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기 .....	133
	2. 말과 글의 비밀 .....	134

3장	영어 개념 심화 학습법	141
	1. 1단계 - 모르는 단어에 대처하기	141
	2. 2단계 - 참지식에 접근하기	147
4장	영어 고공 학습법	148
	1. 정보를 효율적으로 조직화하고 질서화하기	149
	2. 기본 방법 익히기	150
	3. 기본 방법 훈련하기	151
	4. 더 깊이 있는 지적 훈련을 위해	157
5장	영어 객관화·주관화 학습법	158

## 4부 종합 훈련

1장	사고 구조 변환 종합 훈련	162
2장	언어 수용성 종합 훈련	188
	에필로그_ 한민족 교육 공동체와 글로벌 교육 공동체의 비전	198
	부록_ 국가 미래 교육의 새 패러다임 수용성 교육	201
	해답	212

20년 전 한 권의 책을 내면서 다음과 같이 사람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인격적 인성인 지력·심력·체력·자기관리 능력·인간관계 능력의 다섯 가지 요소를 전면적으로 갖출 수 있는 5차원 전면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인생에서 승리할 힘을 지닐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다이아몬드칼라라고 불렀다.

어느덧 20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간 우리는 1만 5,000명 이상의 교사, 부모, 전문가들이 함께 이 주장이 가능한가에 대해 실험해왔다. 그리고 그 결실이 한국을 비롯해 중국, 몽골, 러시아, 미국 등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1996년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교에서 5차원 전면교육을 실시한 후, 엔지시 2중에서 하위권 학생들이 본 교육을 통해 최상위권으로 올라가기도 했다. 1997년 몽골 밝은미래종합학교에서는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에게 본 교육을 적용해 일반 학교 학생들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기도 했고, 2001년에는 몽골의 나차긴 바가반디 대통령과 필자

의 면담을 통해 2002년 몽골국제대학교를 설립하고 중앙아시아에서 본 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2006년 라오스국립대학교에서 5차원 전면교육을 적용했으며, 2012년 탄자니아연합대학교를 설립하는 등 12개국 이상에서 본 교육을 실시해왔다. 한국에서는 세인고등학교에서 최초로 본 교육을 적용한 이후 벨국제학교 설립, 동두천중·고등학교의 전면교육 실시, 그리고 미래 인재를 개발하기 위해 설립한 디아글로벌학교를 통해 귀한 열매들을 수확해왔다. 그리고 2017년에는 KAIST 미래전략대학원에서 5차원 전면교육이 수용성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국가 미래 교육의 모델로 제시되기도 했다.

이러한 지금까지의 열매를 바탕으로 책을 개정해 출간하기로 결정하고, 우선 다섯 권부터 개정을 시작했다. 첫째, 전인격적 인성 교육을 바탕으로 수용성을 길러줄 핵심 역량이 담긴 《5차원 전면교육 학습법》을 《5차원 전면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재개정했다. 둘째, 창조적 지성을 길러줄 핵심 역량을 배울 수 있는 《5차원 독서법과 학문의 9단계》를 수정·보완했으며 셋째, 언어 수용성을 확보해 누구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핵심 역량을 제시한 《5차원 영어 학습법》을 《5차원 영어》라는 이름으로 보완 재개정했다. 넷째, 수학을 포기한 사람이 ‘수학이 언어’라는 중요한 개념을 인식함으로써 누구나 수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융합적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역량을 배울 수 있는 《5차원 수학》을 이전에 발간한 《대한민국 수학교과서》를 대신해 수정 재개정했다. 다섯째, 바른 세계관을 기를 핵심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설계한 《5차원 독서치료》를 재개정했다.

이 책은 누구나 언어 수용성을 확보해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핵심 역량을 제시한 《5차원 영어》이다.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며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소속감과 책임감을 토대로 한 글로벌 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글로벌 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 남들과 협업하고 소통하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필수로 갖추어야 한다.

그럼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바로 사고 구조 변환과 발성 구조 변환 능력이다. 이 책에 이를 위한 근본 방안을 수록했다. 국제적 시야,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 등 국제 감각을 갖추어 외국인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증진하는 데 이 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우리 영어 교육의 문제점과 해결책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 이유는 단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다. 새로운 언어를 습득함으로써 우리가 수용하는 정보의 범위를 넓혀 21세기 지식 정보화사회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폭넓은 지식 습득 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현재와 같이 세계가 한 가족처럼 지내는 시대에는 외국어 능력이 대단히 큰 힘을 발휘한다. 외국인과의 말 또는 글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어로는 습득하기 어려운 외국의 문화와 각종 정보를 언어 지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영어라는 세계 공통의 언어를 익히면 지적 수준이 그만큼 넓고 깊어진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외국어로 된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단지 시험 성적을 올리기 위해 영어를 공부하다 보니 영어 성적은 높는데 실제로 영어는 잘하지 못하는 기현상이 생긴다.

한국인이 영어를 매우 어렵게 생각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도 좋

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영어를 잘하는 핵심 역량’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단어와 문법을 많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필자가 과거 미국에 머물렀을 때를 돌아켜보면, 문법을 거의 모르고 단어만 조금 아는 유치원생도 박사인 필자한테도 잘 안 들리는 TV를 보면서 즐겁게 웃곤 했다. 심지어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필자보다 영어를 더 잘하는 것 같았다. 결국 문법과 단어를 많이 알지 못해도, 특별히 총명하지 않아도 영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영어를 잘하는 데 필요한 핵심 역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핵심 역량의 첫째는 영어를 영어로 생각하는 능력이고, 둘째는 영어를 듣는 능력이다. 영어를 영어로 생각할 수 있으면 영어로 자유롭게 쓰고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영어를 들을 수 있으면 말할 수도 있다. 즉 이 두 가지 핵심 역량을 갖추면 누구라도 영어를 잘할 수 있다. 필자는 지금까지 20여 년간 세계 여러 나라의 교육에 참여하면서, 어떤 나라 사람이든 이 두 가지 역량을 갖추면 매우 쉽게 영어를 익힐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기 어려운 도서벽지의 학생들에게 이 방식으로 지도했을 때도 학생들이 빠른 시간에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을 확인했다. 영어를 영어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사고 구조 변환 능력이 있어야 하며, 영어를 듣기 위해서는 발성 구조 변환 능력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영어를 영어식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고 구조의 차이 때문이다. 즉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우리 한국인의 사고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전달하는 언어의 구조도 완전히 다르다. 영

어는 기본적으로 ‘주어+동사+목적어’의 구조인 데 반해 한국어는 ‘주어+목적어+동사’의 구조이다. 예를 들면 한국인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지만 미국인은 ‘나는 사랑한다 너를(I love you)’이라고 표현한다. 미국인에게 ‘I had breakfast’를 ‘I breakfast had’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할 것이다. 이렇게 영어와 한국어 사이에 구조적 차이가 있는데도, 이미 굳어진 한국어식 사고 구조로 영어를 하려다 보니 어려운 것이다. 다시 말해 언어의 구조가 완전히 다른 영어를 한국어식으로 이해하고 한국어식으로 바꾸려 하니 쉽게 배우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어를 듣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한국어와 영어의 발성 구조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닭이 우는 소리를 ‘꼬끼오’라고 표현한다. 그런데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닭의 울음소리를 ‘cock-a-doodle-doo’라고 말한다. 그러나 닭이 실제로 내는 소리는 꼬끼오도, cock-a-doodle-doo도 아니다. 우리가 닭의 울음소리를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똑같은 소리를 낼 수 없고, 낼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들을 수도 없는 것이다. 한국어의 성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대부분 성대를 떨지 않고 소리를 내는 무성음인데 비해, 영어 단어들은 성조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며 대부분 성대를 떨며 소리를 내는 유성음이다. 그래서 한국인은 영어 발음을 듣기도 어렵고 소리 내기도 어려운 것이다.

## 사고 구조 변환 학습법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사고 구조를 변환할 수 있는가?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영어를 영어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중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은 중국어를 중국어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말은 사고 구조를 변환해야 한다는 말인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방법을 말해주지는 못한다.

사고 구조를 변환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사람들의 사고 구조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한 예로 영어를 사용하는 미국인은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는지 보자. 미국인은 항상 주어(S)+동사(V)의 순으로 이야기한다. 주어와 동사를 말한 후에 궁금한 것이 있을 경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럴 때 한국인과 미국인이 궁금한 것이 서로 다르다.

예를 들어 'I gave'라고 말하고 한국인에게 어떤 것이 궁금한지 물어보면 무엇 **what**을 주었는지 궁금하다고 대답한다. 그런데 미국인에게 'I gave(S+V)'라고 말하고 어떤 것이 궁금한지 물으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whom** 주었는지를 궁금해한다. 다음으로 무엇 **what**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다음으로 어디에 **where**, 왜 **why**, 어떻게 **how**, 언제 **when** 등의 순서로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 구조이다. 그래서 미국인은 '나는(S)/갔다(V)/가게에(where)/음식을 사러(why)/버스를 타고(how)'라고 말한다.

그런데 한국인은 미국인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인은 '나는(S)/버스를 타고(how)/음식을 사러(why)/가게에(where)/갔다(V)'고 이야기한

다. 한국인은 주어를 가장 먼저 말한 후, 다음으로 미국인이 가장 나중에 궁금해하는 when, how, why, where 등의 부사어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으로 whom과 what을 이야기하며,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주어 바로 뒤에 말하는 동사를 맨 나중에 말한다.

이처럼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서로 완전히 거꾸로 생각하는 사고 구조를 가진 것이다. 그런데 중국인의 사고 구조는 또 다르다. 중국인은 주어를 말한 후에 한국인처럼 when, where, why, how 등의 부사어를 말한다. 그다음은 영어처럼 동사를 먼저 말하고 이어 whom과 what을 밝힌다. 다시 말하면 중국어를 쓰는 사람들은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과 영어를 쓰는 사람들의 중간적인 사고를 가진 것이다.

일반적으로 각 언어를 살펴보면 다양하고 복잡한 언어 구조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언어는 소위 '1대원리'라고 부르는 한 가지 형태 pattern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한 가지 형태로 완전히 이해하고 익히면 특정 언어의 사고 구조를 익힐 수 있고, 그 언어의 사고 구조로 변환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방법으로 다른 언어의 구조를 익히면 짧은 시간에 언어를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

한국인이 일본에 가서 약 6개월이 지나면 일본어를 꽤 유창하게 한다. 그런데 미국인 중에는 3~4년간 일본에서 살아도 일본어에 매우 서툰 사람을 종종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어순 때문이다. 일본어의 어순이 한국어의 어순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한국인은 사고 구조의 변환 없이 단어만 알면 쉽게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다. 반면 미국인에게는 일본어의 어순과 영어의 어순이 반대여서 사고 구조의 변환이 용이하지

## 영어의 1대원리

주어(S)+**동사(V)**+목적어(whom/what)+부사어(when/why/how/  
when 등)

## 중국어의 1대원리

주어(S)+부사어(when/where/why/how 등)+**동사(V)**+목적어  
(whom/what)

## 한국어의 1대원리

주어(S)+부사어(when/how/why/where 등)+목적어  
(whom/what)+**동사(V)**

※ 1대원리의 순서는 강조하고자 하는 말을 앞으로 보내려는 습관 때문에 가끔 변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예외로 생각하면 된다.

않기 때문에 쉽게 일본어를 익힐 수 없는 것이다.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울 때 언어 자체가 어려운 것이 문제가 된다  
기보다는 각 언어가 가진 구조가 많이 다를수록 배우기가 힘들다. 따라서  
다른 언어의 사고 구조를 먼저 체득하고 언어를 배우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외국어를 배울 수 있다.

## 발성 구조 변환 학습법

발성 구조를 변환해 내가 배우려는 외국어의 표준 발음을 낼 수 있으면,  
그 말을 쓰는 사람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고 그들이 알아들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발성 구조 변환을 위해서는 외국인이 어떻게 다른 소리를 내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각 언어 사이에 다음 두 가지 경우를 이해할 때 매우 쉽게 외국어를 듣고 말하는 능력을 지닐 수 있다.

첫째, 모음의 소리를 이해해야 한다. 모음을 내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조이다. 성조란 소리의 높낮이를 말한다. 한국어는 음의 높낮이에 따라 뜻이 변하지 않으므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조에 관심이 없고 중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 반면에 중국어는 성조에 따라 뜻이 달라지므로 중국 사람들은 성조를 매우 중요한 요소로 생각한다. 중국어는 같은 ma라는 소리도 성조에 따라 네 가지의 다른 뜻을 가진다. 즉 1성인 ma(→)는 ‘어머니’란 뜻이고, 2성인 ma(/)는 ‘옷감’, 3성인 ma(↘)는 ‘말’, 마지막으로 4성인 ma(\)는 ‘욕하다’라는 뜻이다.

한국어에 성조가 없지만, 한국인이 영어를 배우거나 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는 데는 성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예를 들면 한국인은 mother의 ma를 ma(\)라고 중국어의 4성과 비슷하게 발음한다. 그러나 미국인은 이와 다르게 ma(/)라고 중국어의 2성처럼 발음한다. 다시 말하면 서로 말하는 성조가 다르고, 그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 공부를 오래 해도 잘 알아듣지 못하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각 언어의 성조를 이해하고 이를 익힐 때 매우 쉽게 듣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둘째, 자음의 소리를 잘 이해해야 한다. 각 나라의 자음은 각각 독특한 음가 音價를 가진다. 한국어의 ‘타’와 영어의 ‘ta(타)’는 전혀 다른 소리가 난다. 한국어의 ‘취’와 중국어의 ‘吃[chí](취)’ 역시 다른 소리이다.

이는 각 나라 사람마다 소리를 낼 때 혀와 입술과 목 등 발성기관의 발성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인은 혀를 꼬부리지 않고 평평하게 펴서 발음하는 반면 미국인은 혀가 꼬부라진 소리를 내며, 중국인은 이들의 중간 정도 형태로 발음한다. 한국어는 목이 떨리지 않는 무성음이 대다수인데 영어는 목이 떨리는 유성음이 많고, 중국어는 이 둘이 적당히 섞여 있다. 따라서 혀와 입술의 움직임과 목이 떨리는 정도를 잘 이해하면 외국어의 소리를 원어민에 가깝게 낼 수 있다.

지구 상에 수많은 언어가 있지만 특별히 어려워서 못 배울 언어는 없는 셈이다. 단지 그 말들이 가진 언어 구조를 알고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발음을 낼 수 있도록 사고 구조 변환법과 발성 구조 변환법을 알면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 가지 외국어를 익히면 또 다른 언어를 익힐 때 이러한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그래서 사고 구조 변환 학습법과 발성 구조 변환 학습법을 바탕으로 영어를 익히면 같은 원리로 중국어나 러시아어도 쉽게 배울 수 있다. 더구나 이런 훈련을 바탕으로 다중 언어 능력을 갖추면 커뮤니케이션 능력만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지력도 향상된다. 최근 몇몇 연구 결과를 보면 한 가지 언어만 하는 사람보다 외국어를 깊이 있게 익힌 사람이 다른 면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지식 기반 사회에서 다중 언어 능력은 필수이다.

1부

—

사고 구조  
변환법과  
발성 구조  
변환법

### 1 영어의 사고 구조를 알아야 변환을 시도할 수 있다

이 책에서 배우는 핵심적인 내용은 영어를 영어식으로 생각하는 훈련이다. 한국인이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이유는 영어를 우리말의 어순으로 해석하는 연습을 하기 때문이다. 서로 구조가 다른 두 언어를 구조를 깨뜨려 서로의 틀에 끼워 맞추려고 시도하면 할수록 영어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 구조 변환법’이란 우리 한국인의 사고 구조를 영어식으로 자연스럽게 변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훈련해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돕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한국어와 영어의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영어의 구조는 매우 간단하다. 수학에서 인수분해라는 것을 배운다. 복잡해 보이는 방정식을 인수분해해 간단히 답을 구해내는 것처럼, 매

우 복잡해 보이는 영어의 문장구조를 인수분해하듯 철저히 분석해서 압축했을 때 영어는 결국 한 개의 큰(대) 원리와 다섯 개의 작은(소) 원칙으로 구성된다.

영어의 구조 = 1대원리 + 5소원칙

## 2 1대원리 - 영어의 문장은 한 가지 형식밖에 없다

영어 문장은 다음과 같은 한 가지 형태의 문장구조를 가진다.

주어(S) + **동사(V)** + 목적어(whom/what) + 부사어(when/where/why/how/when 등)

영어의 구조를 알기 위해서는 동사를 이해하면 된다. 동사의 주체가 되는 것은 주어이다. 그런데 주어는 쉽게 알 수 있다. **나** 아니면 **너** 아니면 **다른 사람**이다. 내가 안 했으면 당신이 했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했든지 셋 중에 하나이므로 동사만 알면 주어는 대충 파악할 수 있다.

그러면 주어 다음에는 어떤 것이 올까? 다음 문장을 읽어보자.

① He came

이 말을 들으면 ‘아! 그 사람이 왔구나’ 하고 이해하면 된다. 이때 ‘came’은 다른 낱말의 도움 없이도 자신의 의사를 완전히 표현할 수 있는 동사로 완전자동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톰은/걷는다.

Tom /walks.

그 음악회가/시작한다.

The concert /begins.

한 마리 새가/노래한다.

A bird /sings.

한 아기가/잠잔다.

A baby /sleeps.

## ② He is

‘그 사람은 이다.’ 이 문장을 보면 그가 도대체 누구지 궁금하다. 그래서 설명하기 위해 뒤에 자연스럽게 단어 하나가 따라온다. He is a student. 단어 하나를 더 붙이니 이해하기 쉬운 글이 되었다. 이렇게 ‘그는 학생이다’라고 썼을 때 자신의 의사가 더 잘 표현되는 것이다. He is happy. 이때도 단어 하나를 더 붙이니 ‘그는 행복하다’라고 읽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동사의 뜻에 따라 그 뒤에 무엇을 붙여야 할지 말지가 결정되고, 이렇게 동사 뒤에 보충하기 위해 붙은 낱말을 보어라고 하며(보어는 대략 동사를 보충하는 말로 이해하면 된다), 이런 동사를 불완전자동사라고 한다.

하지만 이 경우 잘 살펴보면 ‘is+a student’가 합쳐져서 ‘학생이다’라는 동사(혹은 서술어)처럼 쓰이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is+happy’도 합쳐져서 ‘그는 행복하다’라는 동사(혹은 서술어)처럼 쓰인다.

be동사+보어(명사 혹은 형용사)=동사의 역할

이것은/하나의 케이크이다.	This/is a cake.
그들은/축구 선수들이다.	They/are soccer players.
그들은/친절하다.	They/are kind.
우리는/배고프다.	We/are hungry.

### ③ I want

이 문장도 읽고 나면 그다음이 궁금하다. ‘**what** 원하는지’ 궁금하니까 뒤에 궁금증을 풀어줄 낱말을 붙여야 한다. I want your help. ‘나는 원한다. 당신의 도움을.’ 이때 동사 뒤에 붙은 궁금증을 풀어주는 낱말을 목적어라고 하며, 이런 동사를 완전타동사라고 한다.

나는 찾았다/나의 반지를	I found / my ring.
그는 빌린다/그녀의 책을	He borrows / her book.
톰은 깼다/하나의 유리잔을	Tom broke / a glass.
나는 잡았다/한 마리 물고기를	I caught / a fish.

### 보어와 목적어의 차이점

1. He became a student. → ‘He’와 ‘a student’가 같다.
2. I want your help. → 주어 ‘I’와 ‘your help’는 다르다.

이렇게 동사 뒤에 붙은 낱말이 주어와 같은 내용일 때가 있고 다른 내용일 때가 있으므로 각각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 같을 때 ‘보어’라

고 부르고, 다를 때 '목적어'라고 부른다. 이것은 그냥 그 낱말들의 이름일 뿐이다. 무슨 심오한 뜻이 있을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심오한 뜻은 없다. 성질이 다르므로 그냥 따로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것뿐이다.

#### ④ I gave

이 문장도 읽으면 그다음에 궁금해지기 시작한다. 첫째 '누구에게 whom 주었는지' 궁금하고, 둘째 '무엇<sup>what</sup>을 주었는지' 궁금하다. 그래서 뒤에 궁금증을 풀어줄 낱말을 붙여야 한다. I gave my father a pen. '나는 주었다. 나의 아버지에게 한 자루 펜을'이라는 말이 된다.

나는 말했다/툼에게/그 소식을

→ I told /Tom /the news.

그녀는 사주었다/그녀의 아들에게/한 대의 차를

→ She bought /her son /a car.

나는 가르쳐주었다/내 여동생에게/영어를

→ I taught /my sister /English.

나는 빌려주었다/그에게/한 권의 책을

→ I lent /him /a book.

#### ⑤ We found

이 문장을 읽으면 첫째 '무엇<sup>what</sup>을 발견했는지' 궁금하므로 이 궁금증을 풀어줄 단어를 붙여야 한다. We found the house. '우리는 발견했다. 그 집을.' 그런데 이때 그 집이 어떤 상태인지 궁금하다면 그 궁금

증을 풀어줄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

We found the house empty. ‘우리는 발견했다. 그 집이 비어 있는 것  
을’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형식의 문장은 한국어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영어 문장이 나오면 어렵게 느껴진다. 하지만  
결코 어려운 문장이 아니라 궁금한 것을 설명해주는 친절한 문장이다.  
이때 마지막에 붙은 empty를 the house의 보어라고 한다(the house와  
empty는 같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충고한다/네가/더 조심하라고

→ I advise /you/ to be more careful.

그는 증명했다/그 자신이/위대한 예술가임을

→ He proved /himself/ a great artist.

그는 도왔다/내가/내 생활비를 버는 것을

→ He helped /me/ earn my living.

지금까지 배운 단순한 문장들에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와 같  
이 필요한 낱말을 추가하면 된다.

한 마리의 새가/노래한다/아침에

→ A bird /sings/ in the morning. (when)

그들은/축구 선수들이다/한국의

→ They /are soccer players/ of Korea. (where)